

단장주교의 4월 서간

에체바리아 단장주교의 4월
사목서간이다

2014-5-5

나의 영적 자녀들이여, 예수님께서나
를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
다!

성주간이다 가옴에 따라 구원의 중심 사
건을 기억하고 다시 살기 위해 최대한 우
리 자신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사순
시기에 맞게 개인적 회심을 위한 열망을
강화합시다.

올해사순시기담화에서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물에 들어가셔서 세례자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의 회개나 개종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고, 비참함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1]

우리주님께서는 우리의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빈곤은 다양한 형태를 띕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물질적 빈곤 외에도, 교황님은 보다 큰 형태의 비참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느님을 멀리한 결과로 오는 **도덕적 궁핍과 영적 궁핍**입니다. 전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이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물 등에 심각하게 중독(실로, 노 예상태)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신들과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가족

들은이들을어떻게도와야할지몰라합니다. “이런유형의궁핍은, 또한재정적 파탄을불러오기도하는데, 영적인궁핍과변함없이연결되어있습니다. 영적인궁핍은우리가하느님으로부터등을돌려그분의사랑을거부할때경험합니다. 우리가스스로알아서다할수있다고믿고그리스도를통하여우리에게 오시는하느님을필요치않다고여기면, 타락의길을가게됩니다. 하느님만이 참으로우리를구하고자유롭게하실수 있습니다.”[2]

잊지맙시다. 우리자신의개인적투쟁 과함께, 우리의삶과함께, 이사람들에 게기쁨과평화를되찾는길을보여주어야합니다 (언제나그럴것입니다). 그리고이길은고해성사를통해나있습니다. 예수님께서제정하신이구원의수 단에접근하는우리의자세를개선하도록노력합시다. 그리고다른이들에게 하느님의자비를어떻게얻을수있는지 알려줍시다.

이는 “영적인 궁핍에 대한 참된 대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가 가능함을, 하느님은 우리의 죄스러움보다 더 위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시며 우리는 친교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의 전령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보물을 공유하며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어둠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경이로운 기쁨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가난한 이와 죄인을 찾아나서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안에서 우리는 용감하게 새로운 복음화와 인류 증진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3]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4]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것은정확하고해성사에서”[5]라고성호세마리아는썼습니다. 그의모범과 말씀의영향을받아돈알바로역시이성사를받기위해세심하게준비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사람들이끈기 와평정심을가지고하느님의인도에따 라은총의길을걸어가기위해힘쓴다면 모두를거룩함으로부르시는우리주님 의초대를받게되리라는것을확신하였 습니다. 그는이렇게첨언하였습니다. “그것이고해성사의사도직이특별히중 요한이유입니다. 오직하느님과지속 적인친교를이룰수있어야만, 성화은 총에기초한친교를획득할수있어야만, 예수께서우리에게보내시는초대를들 을수있습니다. **누구든지내뒤를따라 오려면... .(마태 16:24).”[6]**

부활절이다가옴에따라돈알바로는성 삼일의은총을충분히받기위한노력을 배가하곤하였습니다. 그는이렇게말 했습니다. “우리는 ‘그현장에있는또 하나의인물’이되도록해야합니다. 우 리마음에스승님의수난의발걸음을되

살리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깊은 열망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그 처참한 사건 안에서 우리주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머리와 가슴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또한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죄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초래한 고통에 더욱 깊이 참여 할 수 있도록은 총을 청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한 창설자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그에 의해 영웅적 수준의 하느님 사랑으로 까지 격상된 통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7]

성 목요일의 전례는 돈 알바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희망에 차서, 기쁨(인간적인 것도 포함하여)을 가지고, 그는 성체 성사와 사제직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모든 영혼을 위한 자기 기여를 관상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최고 희생 제사를 뮡상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 성체를 안치하는 임시 제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장장엄하게설치된성당을방문하기를좋아했고, 그의영혼에하느님을향상맞이할수있도록자신을준비하고자하였습니다.

종종돈알바로는이시기전례의독서특히요한복음의수난기에서감동을받는다고말했습니다. 그는주님의수난기를읽고묵상하며성십자가를경배할것을권고했습니다. 그는성금요일애가가불려질때, 그리고부활성야의부활찬송중에강렬하게기도하였습니다.

감사와희망의표시로돈알바로는주머니에가지고다니거나책상에둔십자고상에자주입을맞추었습니다. 돈알바로가우리의아버지의조언에따라했던것처럼, 예수님이가까이다가가서우리가진심으로그분을사랑한다는것을보여드립니다. “당신의십자고상. 그리스도인으로서그대는항상십자고상을가지고다녀야합니다. 당신의책상위에도놓으십시오. 자러가기전에또일어났을때그것에입을맞추십시오. 그

리고당신의가련한몸이당신의영혼에
반항할때에도다시입을맞추십시오
오.”[8] 나는이러한행동이다른사람들
에게깊은영향을미쳐서결국그를따라
강한신심과그리스도적자연스러움으
로그러한행동을실천하게되는것을보
았습니다.

성호세마리아의첫후계자에대한기억
은, 특히그의시복을맞아, 우리의신심
을강화하는데큰도움을줍니다. 또한
지금성주간을사랑과감사로지낼수있
도록합니다. “이시기의장면들에관해
깊이또천천히묵상합시다. 올리브동
산에서의예수님과예수님께서기도중
에어떻게앞으로다가올끔찍한고난에
맞설힘을청하셨는지관상해봅시다.
그순간에그분의가장거룩한인성은당
신벗들의육체적, 영적친밀함을원하
셨습니다. 그러나사도들은그분을홀
로내버려두었습니다. 시몬아, 자고있
느냐? 한시간도깨어있을수없더란말
이냐? (마르 14:37) 예수님은여러분
과나에게도이렇게말씀하십니다. 우

리는 베드로처럼 몇 번 씩이나 죽음까지 도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걸핏하면 예수님을 홀로 남겨 두고 잠을 잡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의 이러한 저버림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매일 우리 가직업에서나 사도직에서의 무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신심이 피상적이고 세심하지 못할 때, 피곤하다고 스스로를 정당화 할 때, 우리의 영육이 저항 할 때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성한 열정이 없을 때, 이렇게 주님을 저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9]

성호세마리아의 “학교”에서 돈 알바로는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묵상에서, 그가 썼듯이, “그 현장의 또 하나의 인물로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상하는 장면은 기도로 바뀝니다. 이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의죄를위해보속을하고자하는강력한 열망이생겨납니다. 그는가족서간에 서우리에게털어놓았습니다. “주님수 난을묵상할때주님을위로하고그분의 고통을덜어드리고자보속을하려는강 한열망이저절로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모든이들의죄때문에고통받으 셨습니다. 그런데오늘날사람들은, 슬 끄게도꾸준하게, 그들의창조주를아 프게하려고결심한듯합니다.”

“보속의결심을합시다! 여러분모두는 우리하느님의사랑에큰기쁨을드리고 자합니까? 우리의아무리사소한잘못이라도예수님께는큰슬픔이된다는것 을알고있습니까? 그래서나는여러분 이작은일에큰중요성을부여하고, 작 은부분들을세심히챙기고, 기계적반 복에그치는것을진정두려워하기를바 랍니다. 하느님께서는우리에게너무 도많이주셨고사랑은사랑으로갚아야 합니다! 거룩한십자가상의예수님을 관상하면서나는그분께우리의고해성 사가더욱참회의것이되도록은총을주

시기를청합니다. 우리의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예수님께서이천년간
십자가에달려계셨으니이제는우리가
십자가에달릴차례이기때문입니다.
또한더많은영혼들을고해성사로이끌
수있는열정을주시기를그분께청합니
다.”[10]

부활시기의시작에성호세마리아의첫
영성체일인 1912년 4월 23일을감사
의마음으로기억합시다. 그때이래로
그의선종까지성체안에계신예수님께
서는당신의착하고충실한종이었던우
리의창설자의마음과영혼에얼마나자
주기거하셨는지요! 이렇게하느님께
서는당신이그에게교회안에서맡기고
자하셨던사명을위한은총을퍼부어주
셨습니다. 이달말 27일에요한 23세와
요한바오로 2세의시성식이거행됩니
다. 그날우리는기쁨에차서하늘에감
사를올릴것입니다. 지상에있을때오
푸스데이를알고사랑했던두명의새로
운전구자를우리는가지게되었습니다.

계속해서주님께나의지향을매일, 특히거룩한미사성제에서,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모두는, 항상거기에 교회와함께, 전인류와함께있습니다. 그리고거룩한어머니교회를멀리하고 공격하기까지하는사람들을사랑하고 (그들은이를필요로합니다) 그들을위해기도하는것을멈추지맙시다.

나의모든사랑을담아, 여러분을축복 합니다.

2014년 4월 1일로마에서

여러분의아버지

+하비에르

[1] 교황 프란치스코, 「사순시기 담화」, 2013. 12. 26.

[2] 위의 글.

[3] 위의 글.

[4] 로마 13:14 참조.

[5] 성 호세마리아, 『길』, 310항.

[6]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93. 12. 1.

[7]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7. 4. 1.

[8] 성 호세마리아, 『길』, 302항.

[9]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7. 4. 1.

[10]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7. 4. 1.

danjangjugyoyi-4weol-seogan/
(2026-1-27)